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93863호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09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4월 9일 목요일(음력 3월 17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부동층 표심을 잡아라"… 막판 승부수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
지지 후보·정당 결정치 않은 유권자 변수로 부상
지지층 결집 주력 속 표심 파고들기에 역량 집중

제주의 선택 D-6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든다.

제주 도내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처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아직도 지지 후보·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표심'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면서도 부동층 잡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오는 9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15일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당·후보들의 경우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신속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부동층이 아직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선거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다.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등 언론 3사가 이달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내 총선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4~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묻는 질문에는 '없음' 14.2~16.3%, '모름·무응답'이 4.0~6.9%로 나왔다.

이에 따라 각 후보진영은 현재까지도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향후 선거 변수로 예상하고 막판 부동층 표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선거일 대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도내 3석 석권'을 판단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 같은 흐름을 선거일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집권당에 계속 힘을 실어달라는 기조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전략 등 돌발 변수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장성철·부상일·강경필)은 투표를 통한 정권심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샤이(shy) 보수' 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2차 여론조사는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 3사가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졌으며, 기타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4·15총선 D-6… 투표용지 검수작업 4·15 국회의원선거를 일주일 앞둔 8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투·개표 종사원들이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4월 임시회 축소… 도정질문 서면 대체 가능성

20~29일 10일간으로 축소
질문 단축·서면활용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월 임시회가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축소 운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임시회 개회일을 기존 16일에서 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초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던 4월 임시회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으로 축소됐다.

이와함께 집행부에 대한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경우 도정질문 의원들이 가능하면 서면질문을 하거나 질의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③1차산업

"지역 1차산업에 관심·지원을" 한 목소리

조동근 국장

김우헌 대표

송방택 농가

▶해양·수산 관련 정부권한 이양받아야=제21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양과 수산관련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바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정부에서 이양된 것이 별로 없다"며 "제주주변의 수산자원 관리나 보호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국가에서 주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시·도의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설정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주가 해양관광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제주신항만은 크루즈 선박이나 국제여객선·요트 그리고 보트, 해양레포츠를 종합적으로 시설하는 해양관광전용항만으로 정부가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제주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관리, 항해관리, 환경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동중국해 해양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자원이나, 항해나 환경관리를 주도해야 앞으로 해양에 대한 관리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인들 농촌에 애정 가져야=김우헌 흔디영농조합법인 대표(파프리카 유리온실)는 "농촌경제, 어촌경제가 매우 어렵다. 농업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1차산업에 대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제주의 애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농가들이 ha당 내지는 평당 수익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결국은 생산비에 가중된다"며 "소비자가격이 높고 인건비도 높다보니 소비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니 좋은 기회인데, 1차산업의 모델이 돼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면 코로나19 사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농민들만큼,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애정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제주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농민과 소통하며 정책 마련해야=송방택 감귤재배 농가(제주시 한경면)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자주 농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농·감·축협 조합장들을 만나 농업정책화를 시켜야 하고, 입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도 말로만 해서 다 끝나버리고 있다. 감귤분야의 경우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한다"며 "제주도는 정책을 수립하고, 감귤연구소나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감귤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된다. 농협은 유통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청년 또는 외지에서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많이 오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매우 부족하다"며 "기존 감귤원에는 FTA 자금으로 해서 하우스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새로 젊은이들이 와서 밭에 하우스 하나 짓는데 융자조차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 안내 4월 1일 시행

※ 채널별로 중복 이용 금지.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 금리감면 혜택 박탈 등 불이익 적용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JejuCreditGuaranteeFoundation
신용보증 해드림

구 분	채널① 제주신용보증재단	채널② 시중은행 직접대출	채널③ 기업은행	채널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 신한, 우리, 기업, SC제일, 하나, 국민, 수협, 제주 등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수협, 제주	가계형 소상공인 (숙박, 음식업 등)	직접대출
상담 접수처	제주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기업은행(심사업무 위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급규모	전국 3조원	전국 3.5조원	전국 2.9조원(지역재단만)	전국 2.7조원
대상자격 (나이스 신용등급)	1 ~ 10 등급	1 ~ 3등급(주거래은행 문의)	1 ~ 6등급	4 ~ 10등급
대출금리	1.40~3.00% (자금종류에 따라 상이)	1.50%	1.50%(3년까지)	1.50%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1,2등급 : 30백만원, 3,4등급 : 25백만원 5,6등급 : 20백만원, 7,8등급 : 15백만원 9,10등급 : 10백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1,2등급 : 30백만원, 3,4등급 : 25백만원, 5,6등급 : 20백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1년(일시상환) 또는 5년(1년거치 4년분할)	1년	1년(최장 8년 연장)	5년(2년거치 3년분할)
보증수수료	0.8%	없음	0.6%(2년차부터 0.9%)	0.8%
유의사항	(보증제한) - 연체보유기업 - 신용관리정보등재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 있는 경우 - 사고, 대위변제 관련기업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증제한) -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 기업 - 기존 기업은행 초저금리 이용중인 기업 - 신보 또는 기보 이용중인 기업 - 약국, 통관업,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복권판매업 등	4/1부터 홀짝제 시행 (출생년도 홀짝 기준)

■ 본 점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 Tel : 064)750-4800 ■ 서귀포지점 :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Tel : 064)733-8133 ■ 동제주지점 : 제주시 건주로 45, 제주축협 삼화지점 4층 Tel : 064)758-8020